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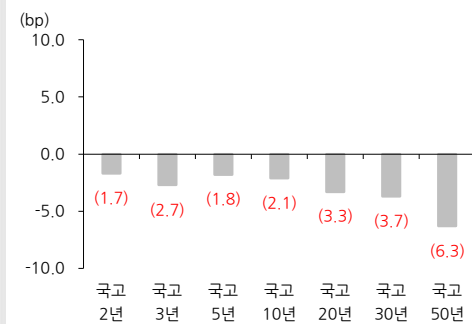
한화 FI Weekly

미 국채 수요 환경 점검

▶ 채권전략 김성수 sungsoo.kim@hanwha.com / 3772-76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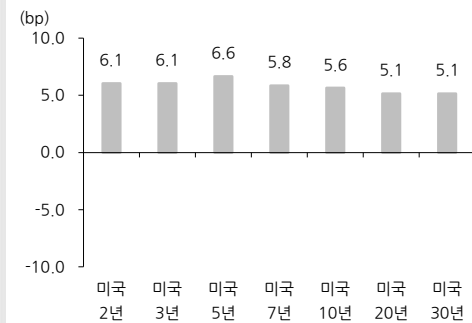
[주요 데이터 및 차트]

주간 주요 국채 금리 변동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미 국채 금리 변동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발행시장: 연준의 빈자리 + α = 운용사

당장의 발행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큰 무리가 없어 보임. 2022년 이후 시장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QT로 인한 연준의 빈자리를 누가 채워줄 것인가 였으나 연준의 '빈자리 + α '를 미국 내 운용사가 대체. 이표채 시장에서 통상 PD 낙찰 물량이 많다는 것은 그 만큼 신규 국채 수요가 시원치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일부 입찰 결과를 제외하면 PD 비중은 큰 변화 부재

지속될 개인 수요, 외국인은 큰 걱정거리가 아니다

전체 국채시장에서는 개인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모습. 2024년 1분기 기준 개인의 국채 보유량은 2조 4,160억달러로 MMF(2조 5,637억달러)와 예금기관과 운용사를 합친(2조 8,113억달러) 양과 비슷한 수준. 앞으로도 개인들의 수요는 꾸준할 가능성이 높을 것.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커졌기 때문. 현재 국채 금리(이자)는 가까운 미래에 쉽게 볼 수 없는 높은 레벨

외국인 수요는 1) 가장 많은 국채를 보유한 일본이 매도할 것인지, 2) 줄어드는 중국의 포지션을 대체할 국가가 있는지 두 가지 포인트를 생각해볼 필요. 우선 일본은 지금 보유량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

엔화 약세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매도가 불가피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시장 개입보다 본인들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것.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이제 시작. 미 국채 매도(달러 공급으로 엔화 약세 대응)는 환율 조작이라는 민감한 주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는 판단

중국과 영국은 지난 해 연간전망에서 예상했던 흐름 유지 중. 중국이 파는 양보다 영국이 사들이는 양이 많은 상황. 2011년 10월 중국이 보유한 채권 대비 8.5%에 불과했던 영국의 미 국채 보유량은 올해 4월 92.1%까지 증가. 현재 양국 채권 보유량은 영국이 7,102억달러, 중국이 7,707억달러

향후에도 '중국이 팔고 영국이 사는' 추세는 이어질 것. 중국은 미 국채를 사들여야 할 유인이 작은 반면, 갈수록 안전자산으로서의 길트채와 파운드화 입지가 약해지는 영국은 미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음

[Compliance Notice]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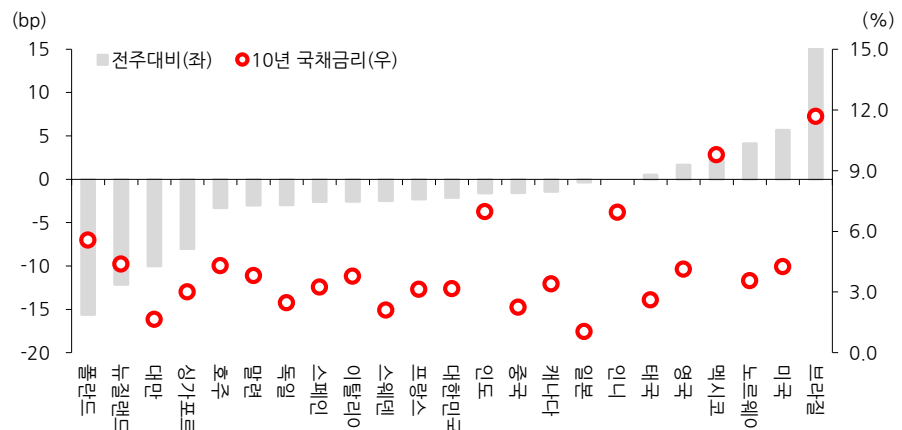
주간 채권시장 동향

글로벌 국채 금리 대부분 하락 지난 주 글로벌 국채 금리는 대부분 하락했다.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ECB 통화 정책회의 등 특별한 이슈가 부재했던 가운데, 꾸준히 감소한 시장 불확실성이 금리 하락을 이끌었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 브라질 등 일부 국가 금리는 상승했다.

영국은 최근 총선 여파에 이어 6월 CPI가 예상치를 웃돌며 통화정책 기대감이 약화되었다.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총격 사건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 압박이 높아지는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이고, 브라질은 실바 대통령의 재정보다 성장을 우선시하겠다는 발언 이후 시장 불안감이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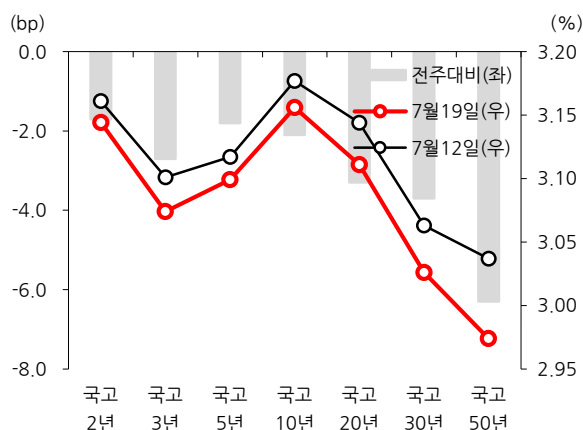
국고채 금리 하락 국고채 금리는 하락했다. 외국인 주도 강력한 수요 등 타이트한 수급 환경이 시장 강제 재료로 작용했다. 국고 3년, 10년 금리는 전주 대비 각각 2.1bp, 1.5bp 하락한 3.07%, 3.15%를 기록했다. 국고 50년 금리는 2022년 8월 이후 만기별 금리 중 처음으로 3%를 하향 돌파했다.

[그림1] 주간 주요국 채권 금리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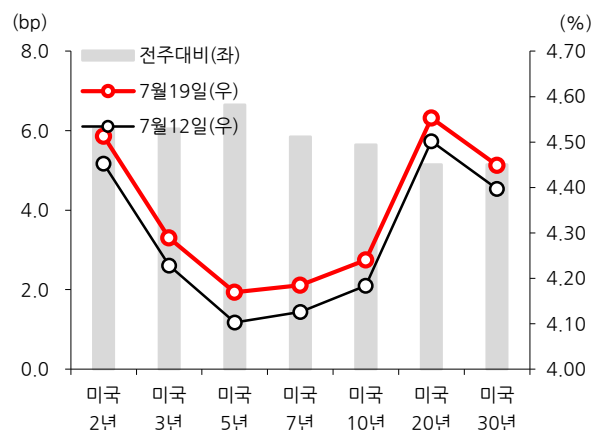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주간 국고채 수익률 커브 변동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주간 미 국채 수익률 커브 변동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채권시장 전망

1. 미 국채, 수요는 거뜰하다

미 국채 수급 우려,
수요는 괜찮을 것

미 국채 수급에 관심이 커지는 모습이다. 11월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국채 발행 규모는 늘어날 공산이 크다. 마칩 3분기 국채 발행 계획 발표도 31일 예정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공급이 많이 증가하더라도 그 만큼 수요가 받쳐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당사는 수급 이슈가 미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특수성도
고려할 필요

연준의 Waller 이사로 여러가지 위협 요인이 있지만 미 국채의 수요는 장기적으로도 약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는 특수성 외에도 금융위기 이후 미국 내 금융기관들의 규제(안전자산 확보) 강화, 글로벌 국부펀드와 중앙은행 자산 규모 증가, 미국인들의 고령화 등을 고려하면 수요 환경은 안정적이라는 설명이다.

발행시장 상황은
양호

우선, 당장의 발행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2022년 이후 시장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QT로 인한 연준의 빈자리를 누가 채워줄 것인가였다. 현재 미국 내 운용사들은 연준의 빈자리를 넘어 '+α'를 매꿔주고 있다. 이표채 시장에서 통상 PD 낙찰 물량이 많다는 것은 그 만큼 신규 국채 수요가 시원치 않다고 볼 수 있는데 몇몇 개별 입찰 결과를 제외하면 PD 비중은 늘어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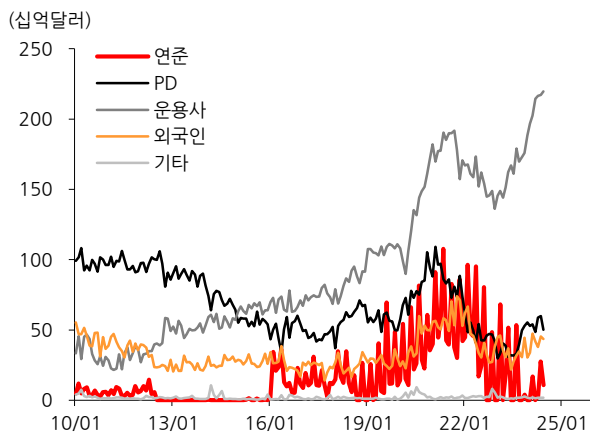
개인과 ETF 자금
급격히 증가

전체 국채시장에서는 개인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2024년 1분기 기준 개인의 국채 보유량은 2조 4,160억달러로 MMF(2조 5,637억달러)와 예금기관과 운용사를 합친(2조 8,113억달러) 양과 비슷하다. 여기에 더해 ETF 시장 외연 확장으로 동 계열 자금도 국채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개인 채권 수요는
앞으로도 강력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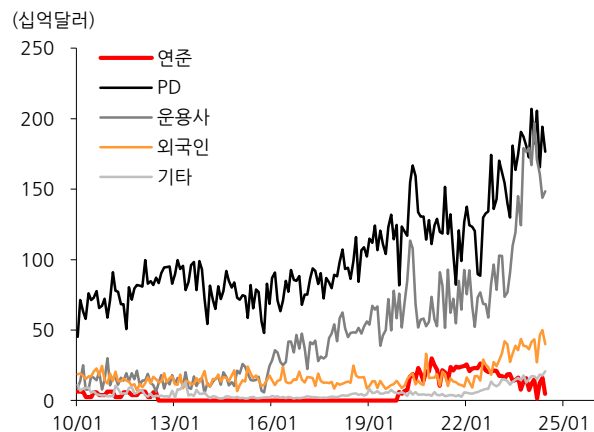
앞으로도 개인들의 수요는 꾸준할 가능성이 높다. Waller 이사의 설명처럼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현재 국채 금리(캐리 수익)는 가까운 미래에 쉽게 볼 수 없는 높은 수준이다.

[그림4] 발행시장 투자자별 낙찰 물량 추이(이표채)



자료: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발행시장 투자자별 낙찰 물량 추이(재정증권)



자료: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외국인 수요 포인트 두 가지

마지막으로 외국인 수요는 1) 가장 많은 국채를 보유한 일본이 매도할 것인지, 2) 줄어드는 중국의 포지션을 대체할 국가가 있는지 두 가지 포인트를 생각해봐야 한다. 우선 일본은 지금 보유량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1) 일본이 적극적으로 매도할 가능성 낮고

엔화 약세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매도가 불가피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시장 개입보다 본인들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것이다.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이제 시작이다. 미 국채 매도(달러 공급으로 엔화 약세 대응)는 환율 조작이라는 민감한 주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다.

2) 중국의 매도량은 영국의 매수량이 상회

중국과 영국은 지난 해 연간전망에서 예상했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이 파는 양보다 영국이 사들이는 양이 많다. 2011년 10월 중국이 보유한 채권 대비 8.5%에 불과했던 영국의 미 국채 보유량은 올해 4월 92.1%까지 증가했다. 현재 양국 채권 보유량은 영국이 7,102억달러, 중국이 7,707억달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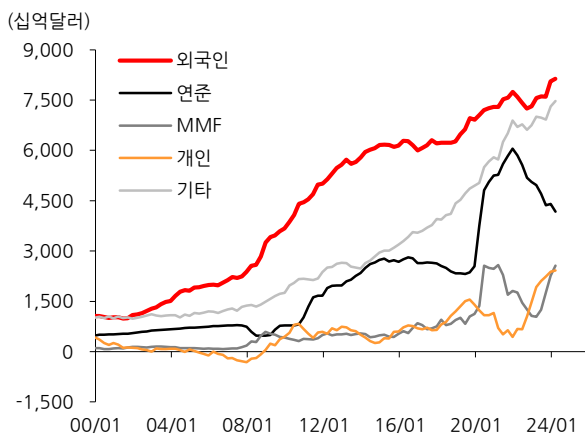
이런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

향후에도 ‘중국이 팔고 영국이 사는’ 추세는 이어질 것이다. 중국은 계속해서 미국과의 경제-정치적 관계가 벌어지고 있어 미 국채를 사들여야 할 유인이 작다. 반면, 갈수록 안전자산으로서의 길트채와 파운드화 입지가 약해지는 영국은 미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고 3년: 3.03~3.10% 국고 10년: 3.10~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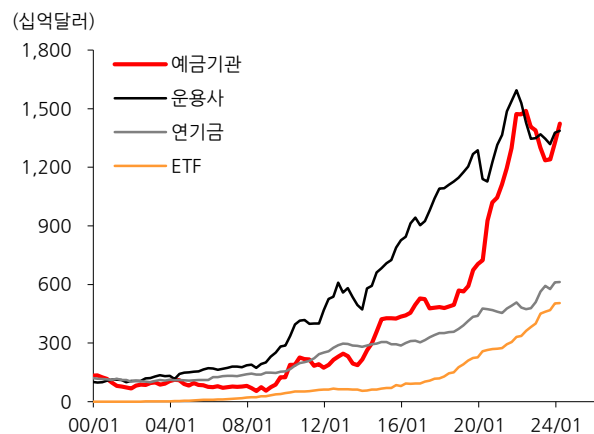
이번주 국고채 금리 밴드는 3년, 10년 각각 3.03~3.10%, 3.10~3.20%를 제시한다. 주 후반 PCE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경계감이 유입될 것으로 보이고, 국고 3년, 10년이 당장 3.00%, 3.10%를 뚫고 내려가기는 어렵다. 하단이 막힌 박스권 장세를 예상한다.

[그림6] 보유량 기준 상위 5개 투자주체별 미 국채 보유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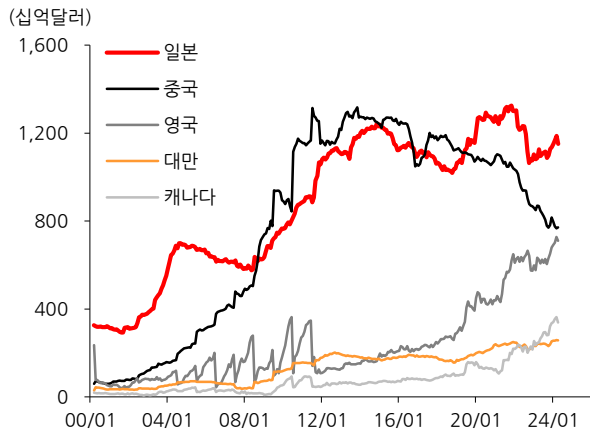
자료: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금융기관별 미 국채 보유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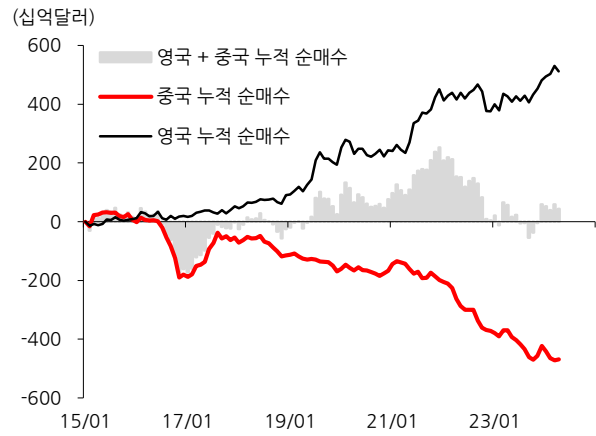
자료: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보유량 기준 상위 5 개 국가별 미 국채 보유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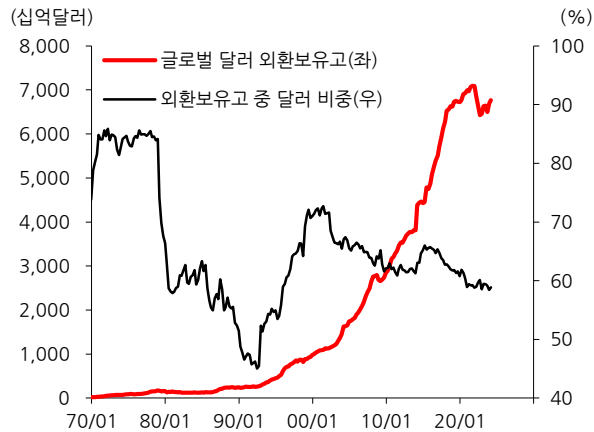
주: 조세회피처 제공 국가는 제외
자료: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중국 포지션 축소는 영국이 상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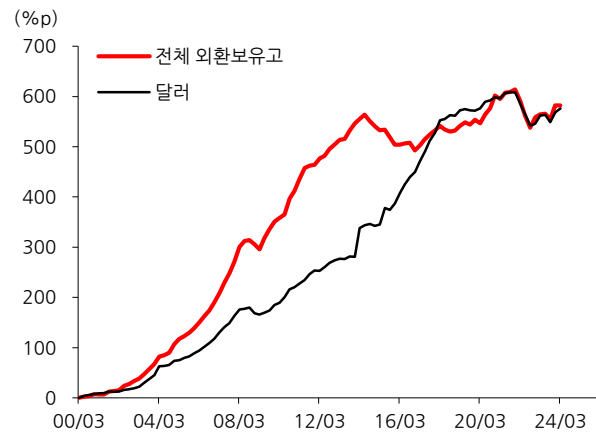
자료: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달러 보유 비중은 줄어도 규모는 증가 중



자료: IMF,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달러 외환보유고 증가 속도도 뒤쳐지지 않음



주: 2000년 1분기 대비 전세계 달러 및 전체 외환보유고 증가율
자료: IMF,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 통화정책 관련 당국자 발언 주요 내용

[표1] 중앙은행 인사 발언 주요 내용

일자	성명 (직책)	성향, 투표권	발언 주요 내용
7/15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 둔화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 간의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운용해 나갈 것 - 그 과정에서 금리 인하 기대가 외환시장, 주택가격, 가계부채 등을 통해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점검해 나가면서 주의깊게 할 필요 - 부동산PF 시장의 부진, 연체율 상승세, 수도권 중심의 주택가격, 가계부채 상승세, 외환시장 변동성 등이 불안요인이지만 국내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 - 물가상승률이 둔화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 추세의 지속 여부를 좀 더 확인해야 함
7/15	Austan Goolsbee (시카고 연은 총재)	비둘기파,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만간 기준금리 인하는 기정사실(interest rate cuts are soon warranted)
7/16	Jerome Powell (연준 의장)	비둘기파,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몇 년간 경제는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음(performed remarkably well) - 2분기 발표된 세번의 물가지표들은 인플레이션 안정에 진전이 있었음을 증명(does represent progress) - 인플레이션 초기 연준은 수요 증가로 인한 물가 상방 압력이 일시적일 것으로 판단 - 본인은 과거 사이클과 달리 고용 훼손 없는 물가 안정이 가능하다고 계속해서 생각해왔음 - 물가가 어느정도 안정을 찾은 만큼 연준의 이중 책무 모두 집중할 것 - 예상치 못한 고용시장 약화는 대응의 명분 - 물가가 2%로 복귀한 것을 확인한 뒤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정책 실기 가능성이 커짐 - 경제 관련 서프라이즈가 계속해서 나와준다면 이는 좋은 일 - 통화정책은 극단적으로 긴축적이지 않은(policy is restrictive though not severely) 것으로 판단. 이를 통해 중립금리가 상승했음을 추정 가능
7/16	Mary Daly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중립,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가 2%로 복귀한다는 확신이 커져가고 있음. 그러나 아직 충분한 수준은 아님
7/17	Adriana Kugler (연준 이사)	중립,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 나올 데이터들이 확신을 심어주지 못할 경우 기준금리는 조금 더 유지(hold rates steady a little longer)하는 것이 적절 - 고용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냉각되면 기준금리 조기 인하가 뒤늦은 인하보다 나을 것(cut interest rates sooner rather than later) - 물가의 상방 압력과 고용의 하방 압력 모두 균형을 찾아 나가고 있음. 수요와 공급도 마찬가지로 - 경제 지표들이 우호적으로 나와준다는 가정 하에 연내 통화정책 완화가 적절 - 고용시장의 정상화 흐름은 물가도 2%로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지지 - 물가는 디스인플레이션 기조로 복귀(disinflation is back on track) - 목표 물가 달성에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인 입장 - 연준은 고용시장이 지나치게 냉각되는 것을 바라지 않음 - 데이터들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기에 그 어느 때보다 주의 깊게 관찰 중
7/17	John Williams (뉴욕 연은 총재)	중립,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기준금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좋은 수준 - 더 많은 데이터들이 물가에 대한 확신을 강하게 해줄 것. 광범위한 품목들에서 물가 둔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 - 고용시장은 약하다고 볼 수 없음. 여전히 강력한 수준 - 조만간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있을 것(there is a decision ahead of us on lowering rates). 향후 발표될 데이터들은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공고히 해줄 수 있음(an interest rate cut could be warranted in the US in the coming months) - 연준은 7월과 9월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것 - 물가상승률이 2%로 복귀 중이라는 증거가 더 명확해지고 있음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2] 중앙은행 인사 발언 주요 내용

일자	성명 (직책)	성향, 투표권	발언 주요 내용
7/18	Thomas Barkin (리치몬드 연은 총재)	중립,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들은 고용 축소에 소극적. 일부 산업은 지금도 고용 부족 상태 - 물가는 2분기 원 궤도에 복귀했고, (목표 달성을 위한) 마지막 국면에 위치 - 기업들은 가격 결정권 유지를 위해 노력 중이나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 - 통화정책 시차가 과거보다 길어졌을 가능성. 그럼에도 긴축적인 수준이라는 것은 사실. 고용시장도 완화(cooled) - 실업률을 면밀히 주시 중이나 통화정책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있음 - 서비스와 주거 물가는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님 - 낮은 물가상승률이 유지(sustain)되고 광범위한 품목(broaden)에 나타나기를 기대. 현재 둔화 압력의 확산은 시작(I am starting to see broadening). 이는 매우 고무적이며 지속되기를 희망. 디스인플레이션 유지(sustain)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가 조금 더 필요 - 7월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 관련 논의 있을 것 - 기준금리 인하 폭과 횟수가 아닌 시점이 중요
7/18	Christopher Waller (연준 이사)	중립,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시나리오에 비추어 봤을 때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가까워진 것은 사실 - 긍정적인 시나리오(긍정적 물가 흐름 지속)에 근거할 경우 인하 시점은 멀지 않은 미래일 것 - 두 번째 시나리오는 물가 관련 진전은 계속되겠지만 율통불통한 흐름 지속. 이럴 경우에도 가까운 미래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 그러나 전망은 불확실함 - 세 번째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낮지만 하반기 물가 반등(significant resurgence in inflation) - 고용 수급 상황은 대체로 균형 잡힌 수준(rough balance) - 지금부터는 실업률 상방 압력이 우세. 그럼에도 고용시장은 준수한 상황(in sweet spot). 기업들은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노동력을 보유 중. 연준은 지금 수준의 고용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 개인 소득에 추가 진전 부재. 소비 둔화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 - 현재 상황은 고용의 큰 악화 없는, 경기의 연착륙이 가능함을 시사 - 임금 상승률은 계속해서 둔화 중. 현재는 물가 안정 목표를 지지할 수 있는 수준 - 정확한 인하 시점은 크게 중요하지 않음
7/18	Christine Lagarde (ECB 총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들을 보면 2분기도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 다만, 성장률은 1분기처럼 낮을 전망 - 투자 상황은 2024년 경기 둔화를 시사. 서비스 산업은 회복세. 나머지 산업과 수출은 약세. 소비가 성장세 지지할 것으로 기대 - 고용시장은 회복력 있는 모습. 2분기는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일자리가 창출되었을 것 - 임금은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고, 고용 비용도 당분간 높은 수준이 이어질 가능성 - 인플레이션은 연말까지 지금 레벨에서 등락할 것(fluctuate near the current levels for rest of the year). 임금과 기업이익, 지정학적 리스크가 물가의 상방 압력 - HICP 물가는 내년 하반기에 목표 수준 도달 전망 - 성장은 하방 압력이 소폭 우세 - 많은 임금 지표들은 상승을 지지하고 있음. 이는 6월 예상에 부합
7/19	Austan Goolsbee (시카고 연은 총재)	비둘기파,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몇 개월간 개선된 지표들을 확인. 물가와와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은 사실 - 고용 시장은 완화(cooled)되었으며 균형을 찾아 나가는 중. 고용의 완화(cooling job market)는 당연히 우려의 영역(definitely an area of concern) - 물가 흐름은 2%로 복귀하는 경로에 위치할 것으로 추정 - 실질금리 측면에서 통화정책은 확실히 긴축적이었음
7/19	Lorie Logan (달라스 연은 총재)	중립,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은행들(all eligible banks)은 재할인 창구 이용에 준비가 되어있어야 함 - 연준의 긴급 대출 프로그램은 효율적으로 작동해왔음
7/19	Mary Daly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중립,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 데이터는 긍정적이나 아직 목표 범위에 들어온 것은 아님. 물가 안정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음 - 연준은 기민한 대응과 정책 실행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함(costs of acting quickly and being wrong) - 경기 침체(economic decline)를 예상하진 않지만 임무 완료를 선언하지도 않을 것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Fixed Income Calendar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22	23	24	25	26
<p>(한국)</p> <p>국고 5년 입찰(1 조 9,000 억원)</p> <p>(미국)</p> <p>6월 시카고 연은 연방 국가활동지수 (예상: -0.06, 전월: -0.18, 전년: 0.14)</p>	<p>Lane ECB 수석이코노미스트 연설</p> <p>(한국)</p> <p>국고 20년 입찰(5,000 억원) 6월 PPI (전월비: 0.1%, 전년비: 2.3%)</p> <p>(미국)</p> <p>7월 리치몬드 연은 제조업지수 (전월: -100, 전년: -9.0) 6월 기준주택 판매 (예상(m): -3.8%, 전월비: -0.7%, 전년비: -2.8%)</p> <p>(일본)</p> <p>일본은행 국채매입</p>	<p>Lane ECB 수석이코노미스트 연설</p> <p>(한국)</p> <p>7월 CSI (전월: 100.9, 전년: 103.4)</p> <p>(미국)</p> <p>2년 국채 입찰 (4.71%, 간접: 65.6%, 응찰률: 2.75배) 6월 신규주택 판매 (예상(m): 3.4%, 전월비: -11.3%, 전년비: -16.5%)</p>	<p>Bowman 연준 이사(메파, 이) 연설 Logan 달라스 연은 총재(중립, X) 연설 (Black Out 기간이나, 두 위원 모두 달라스 지역 행사, Strengthening Community Partnership 행사 비디오 연설)</p> <p>(한국)</p> <p>8월 BSI 제조업 압력전망 (전월: 75.0, 전년: 69.0) 2분기 GDP(속보) (전분기비: 1.3%, 전년비: 3.3%)</p> <p>(미국)</p> <p>5년 국채 입찰 (4.33%, 간접: 68.9%, 응찰률: 2.35 배) 2분기 GDP(속보) (예상: 1.7%, 전분기비연율: 1.4%)</p> <p>(유로존)</p> <p>6월 M3 통화공급 (전월비: 1.9%, 전년비: 1.6%)</p>	<p>(미국)</p> <p>7년 국채 입찰 (4.28%, 간접: 69.7%, 응찰률: 2.58 배) 7월 캔자스시티연은 제조업 활동지수 (예상: -5.0, 전월: -8.0, 전년: -9.0) 6월 PCE, Core PCE (PCE 예상 전월비: 0.1%, 전년비: 2.5%) (Core 예상 전월비: 0.2%, 전년비: 2.6%) (PCE 전월비: 0.0%, 전년비: 2.6%) (Core 전월비: 0.1%, 전년비: 2.6%) 7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 심리지수(확정) (전월: 68.2, 전년: 71.5)</p>
29	30	31	8/1	2
<p>(미국)</p> <p>7월 달라스 연은 제조업 활동지수 (전월: -15.1, 전년: -21.2)</p> <p>(일본)</p> <p>일본은행 국채매입</p>	<p>(미국)</p> <p>5월 FFA 주택 가격지수 (전월비: 0.2%, 전년비: 6.3%) 5월 Case Shiller 20 대 도시 주택 가격지수 (전월비: 0.38%, 전년비: 7.20%) 7월 컴퍼런스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전월: 100.4, 전년: 114.0)</p> <p>(유로존)</p> <p>7월 소비자 신뢰지수 (전월: -14.0, 전년: -15.2) 2분기 GDP(속보) (전분기비: 0.3%, 전년비: 0.4%)</p>	<p>일본 BoJ 금융정책결정회의</p> <p>(한국)</p> <p>6월 소매판매 (전월비: 3.6%, 전년비: -3.1%) 6월 광공업생산 (전월비: -1.2%, 전년비: 3.5%) 6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전월: 100.5, 전년: 99.1)</p> <p>(미국)</p> <p>6월 미결주택 판매 (전월비: -2.1%, 전년비: -6.6%)</p> <p>(중국)</p> <p>7월 제조업 PMI (전월: 49.5, 전년: 49.3)</p>	<p>미국 연준 FOMC 브라질 BCB COPOM 영국 BOE MPC</p> <p>(한국)</p> <p>7월 수출입 (수출 전월비: , 전년비: 5.1%) (수입 전월비: , 전년비: -7.5%)</p> <p>(미국)</p> <p>7월 ISM 제조업지수 (전월: 48.5, 전년: 46.5)</p> <p>(유로존)</p> <p>7월 제조업 PMI (전월: 45.8, 전년: 42.7) 6월 실업률 (전월: 6.4%, 전년: 6.5)</p>	<p>(한국)</p> <p>7월 CPI, Core CPI * Core 음식, 에너지 제외 (CPI 전월비: -0.2%, 전년비: 2.4%) (Core 전월비: 0.0%, 전년비: 2.2%)</p> <p>(미국)</p> <p>7월 실업률 (전월: 4.1%, 전년: 3.5%) 6월 공장수주 (전월비: -0.5%, 전년비: 0.9%) 6월 내구재 주문 (전월비: 0.1%, 전년비: -1.3%)</p>

주: 한국 시간 기준, 중앙은행 인사 'O', 'X'는 당해년도 투표권 보유 여부
자료: 연합인포맥스,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MSCI

The MSCI sourced information is the exclusive property of MSCI Inc. (MSCI). Without prior written permission of MSCI, this information and any other MSCI intellectual property may not be reproduced, disseminated or used to create any financial products, including any indices.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on an "as is" basis. The user assumes the entire risk of any use made of this information. MSCI, its affiliates and any third party involved in, or related to, computing or compiling the information hereby expressly disclaim all warranties of originality, accuracy, completeness,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with respect to any of this information. Without limiting any of the foregoing, in no event shall MSCI, any of its affiliates or any third party involved in, or related to, computing or compiling the information have any liability for any damages of any kind. MSCI and the MSCI indexes are services marks of MSCI and its affiliates.

◎ GICS

The 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GICS) was developed by and is the exclusive property of MSCI Inc. and Standard & Poor's. GICS is a service mark of MSCI and S&P and has been licensed for use by [Licensee].
